

# 시론

## 비굴한 처사, 오만방자한 행태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달라고 부진 애를 쓰고있지만 수치와 모멸만 당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최근에 발간한 《외교백서》에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추켜세우고 《대화를 통한 쌍방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등 일본에 계속 빌붙는 자세를 취하고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처사가 도리어 일본을 더욱 오만방자하게 만들고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남조선이 《포괄적, 점진적한태평양경제권대협정》(《CPTTP》)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히자 일본은 남조선의 《CPTTP》가입을 일본주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우선이다. 의장국인 일본이 반대하면 절대로 가입할수 없다. 일본산수산물들의 수입을 규제하고있는 남조선은 참가할 자격조차 없다고 사대질을 한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 과거사와 관계개선문제를 분리대응하자는 남조선당국의 간청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선해결책》만을 압박하고있는가 하면 《평화의 소녀상》건설 1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니, 앞으로도 남조선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니 하고 큰소리를 쳤다고 한다.

이어 《독도는 일본령토》라며 생억지를 쓰고 《독도보복법》이라는것까지 조작하는 등 강경립장을 취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의 대일굴종적인 자세가 불러온 엉망진창 결과라 하겠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항상 약한 나라는 힘으로 억누르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나라. 저보다 센 나라는 등에 업고 날치다가도 기회만 생기면 뒤잔등에 칼을 박는것도 서슴지 않는 간악무도하고 잔혹한 족속들이 바로 일본이다.

과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던 일본의 침략력사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한마디로 약자앞에서는 승냥이가 되고 강자앞에서는 여우가 되는것이 일본의 본성이고 생존방식이다.

이런 일본에게 비굴하게 관계개선을 구걸하고있으니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갈수록 파멸치게 높아 대고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에서 당국의 태도가 일본의 강경자세를 부추기고있다. 대일굴종적인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었다.

제반 사실은 추악하고 파멸적인 친년속적 일본에게는 사소한 타협이나 양보도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 《국방정책》에 대한 불만, 무엇때문인가

남조선에서 당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 《인구절벽시대》, 군대갈 사람이 없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최근 저출산심화에 따른 병력자원감소가 곧 현실화될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늦기전에》 징병제위주의 현 병력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잇달고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모병제전환》 주장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다른 언론들도 당국의

가 군부와 각계층에서 우려나오고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해마다 병력수가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보충병으로 소집되었을 인원마저 현역으로 임명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인구추이로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국 《출산률하락상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뉴스1》, 《뉴스1》은 지난해 11월 남조선당국이 노소수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투입한데 대한 야당의 불만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국방부는

《인구절벽시대》로 인해 해마다 병력수가 줄어들고 《예전 같으면 보충병으로 소집되었을 인원마저 현역으로 임명하고있다》고 하면서 현재 인구추이로는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결국 《출산률하락상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 눈과 귀를 달은 당국

남조선당국의 군인사란만도 문제시되었다.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이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최근 해군참모총장을 호남출신으로 임명하는데 대해 군내부에서 《지역편중인사》, 《군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라는 불만이 터져왔다

본사기자

다고 하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부당과 고통이 얼마이겠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런 민생고는 외면

전문가들은 당국이 지나친 관료화에 빠져있다. 불안한 방역상황, 높은 물가상승, 《대선》 등의 요인들로 경제지표달성이 불투명하다. 경제정책이 3개월짜리 《시한부정책》으로 끝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저녁들이 덥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벽들이 더웠는가 하는 소리일 것이다.

황금만능과 약육강식, 재벌우선, 리윤추구, 외자의 존... 취약한 경제구조와 반인민적약정으로서는 《선진국》의 꿈을 이룬다는것이 허황하고 과도한 망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선진국》 흉내를 내보려다가...

금리시대 개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거둬드는 좌절, 원자재대란, 《일확천금의 꿈》을 위한 가상화폐광물... 자본주의적이며 대외의존적인 남조선경제의 취약성이

과 불합리성이 낳은 불가피한 현실이고 결과이다.

거기에는 부동산정책, 일자리 문제, 남조선당국이 주관적우방으로 추진한 《혁신정책》들의 실패와 무리한 재정확대정책실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꿈》, 일자리의 꿈을 버리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대출절벽》현상이 일어나 《대출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소비자가물가가 3.7%나 오르고 1인당 체 무부담액은 1만 7 440US\$로 8.3%나 올랐

고 저들의 《치적》만 자랑하면서 올해에도 또다시 《경제선진국》, 《완전한 경제성숙화》, 《선진국경제로약》을 운운하며 기금조성, 첨단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등을 광고했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선진국》 흉내를 내보려다가... 라고 저들의 《치적》만 자랑하면서 올해에도 또다시 《경제선진국》, 《완전한 경제성숙화》, 《선진국경제로약》을 운운하며 기금조성, 첨단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등을 광고했다.

본사기자 김정혁

#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가. 철박한 민생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무엇을 하고있는가.》

이것은 지난해말 썩은 정치권에 대해 저주와 분노를 토로한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의 한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남조선정국은 한마디로 권력야망과 사리사욕추구를 위한 개싸움판이었다.

여야당 《대선》후보들의 련이 부정부패의혹과 실언들, 그를 둘러싼 각 당파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있어 남조선정치권의 추악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대선》후보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저질스러운 망동과 부정부패로 수사대상에 오르자 민심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사과놀음을 련속 벌리는 속에 여야당패들은

서로 집권하면 상대방을 일망타진하겠다. 범죄자를 반드시 단죄하여 감옥에 처넣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 이후 정치부패에 나설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정치적적수를 제거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싸움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이 《누구는 눈에 띄우면 총을 란사하는 정쟁러가 돼버린 선거판》, 《정쟁은 보이지 않음과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가득 찬 진영간의 대결장으로 바뀐 선거》라고 개탄했는가.

민생을 외면한 권력싸움은 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으로 이어졌으며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과 민심의 거세찬 항거를 불러왔다.

지난해 현 《정부》가 부당산문제와 일자리문제 등

에 대한 이리저리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부동산가격은 11.5%나 상승하고 일자리정책도 련이어 실패하여 실업자는 110만 8 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 당국의 일몰적인 영업제한조치로 하여 파산의 진창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을 문턱에 내몰리고있는 남조선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보아도 파국에 처한 남조선경제와 민생실태를 잘 알수 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과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국민을 위한 정치》란 사 이비객들의 권력야욕과 당리당략을 위한 위선적인 당발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 준다.

본사기자 김광혁

# 단 평 가련한 《503》

남조선당국이 새해를 앞두고 《최악의 국정통단자》, 《희세의 악녀》로 라틴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였다.

그 무슨 《국민통합》과 《건강상리유》에 의한것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정당, 민심의 반응은 각각각색이다.

박근혜의 《사면》이라는것이 가족이나 출렁거리지는 정치권과 안정되지 않은 민심에 바위돌을 던진 격이니 다름없기때문이다.

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은 박근혜의 《특별사면》을 두고 《초불혁명을 배신한 기만적인 결정》, 《최악의 오점중의 하나》라고 당국을 비난해나서고 여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당파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자기들에게 쏠리는 비난을 막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하면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

은 환성을 울리다 못해 《박근혜명예회복》운동을 벌려겠다고 벽적대는중이라고 한다.

당달아 《정치철세》인 《국민의 당》 대표까지도 《내가 이전부터 강하게 주장해온것》, 《리명박도 사면》해야 한다고 제 내뱉기, 양념질을 해했다고 한다.

가관은 《국민의힘》이다. 이미전부터 보수세력의 지지를 구걸하기 위해 《박근혜사면》을 고야대는 《국민의힘》은 《사면》소식에 어리벙벙했다가 한다는 수작이 《제헌살리기사면》, 《국민분열사면》이라고 당국과 여당을 공격해나섰다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것은 박근혜에게 최고망을 채우고 《503》의 《이름》을 주는데서 주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윤석열이 180° 변신인지, 360°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통령》이라

는 낮간지러운 소리를 해가며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희세의 악녀》로 라틴다. 《희세의 악녀》로 라틴다.

박근혜가 철창속에 처박혀있을 때도 당국과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감으로 삼더니 정작 나오니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매개물취급을 한다.

그나저나 박근혜가 가련하다.

아직도 민심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정통보수》라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통각물로 필바에는 이 꼴지꼴 다 안보고 그냥 철창속의 《503》으로 살았을것이다.

권력자들에게 눈이 어두운 남조선의 여야정치세력들이 앞으로 박근혜를 놓고 또 어떤 정치희비극을 연출하겠는지. 불쌍사나운 남조선정치권에 침을 뱉고 점점 멀어지는 남조선민심이다.

서명수



남조선에서 열린 집회 모습

《검찰당》, 남조선에서 《국민의힘》내부의 윤석열 패거리리를 가리켜 하는 소리이다.

그 《검찰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보시겠습니까.

최근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풍지박산났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리준석, 총판선거대책위원장 김중민과의 알뜰한 갈등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의 의도라고 해야 더 정확할것입니다.

윤석열이 당대표는 좀 쉬라, 김중민은 저리 가라 하는 식으로 방자하게 높아냈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국민의힘》내부에서 그 무슨 《쿠데타》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자기와의 마찰로 지방에 내려갔던 리준석에게 술 한잔 먹이고 열리며 데려왔지만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간다고 여전히 《저애

《선거대책위원회 전면개편》!

참다못한 김중민이 칼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를 직접 통제하겠다》, 《후보는 선대위가 시키는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고 령집을 찍었습니다.

《1일1만원》이 고 대본없이

당국을 배신했으니 여당에는 안돼. 《내가 왜 네 말 듣지? 난 후보말만 듣는다》고 공공연히 리준석에게 대본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어린애》 취급을 당하는 리준석이 지난해말에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선대위에 있을 때는

이것이 당권을 위한 《윤석열의 쿠데타》입니다.

이미전에 누군가가 《정권 교체하려 입당했다, 당권교체하려 입당했다.》라고 쓴 소리를 한게 우연한게 아니었습니다.

얼마전에 윤석열이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당권을 위한 《쿠데타》각본으로 《정권교체》의 《쿠데타》를 위한 연습을 했나봅니다.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가 되어 못할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던 전직검찰총장이 남조선을 거대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쿠데타》에 돌진할것입니다.

물론 그앞에는 《검찰당》이 된 《국민의힘》이 서있을것이고.

《검찰당의 쿠데타》, 그러나 쿠데타와 독재의 쓴맛을 볼때도 본 남년인민들이 더러운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가만두두웠습니다.

본사기자 주광일

# 《〈검찰당〉의 쿠데타》

《배성(무시)》하고 없으면 《애 나갔다.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패거리에 대한 리준석의 불만입니다.

그러자 윤석열패거리리는 《30대 정치예송이의 격기》,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 또 비난합니다.

리준석을 《예지중지》하는 김중민이 나서서 손자달래듯 해보았지만 리준석의 용이는 풀리지 않았습다.

《국민의힘》내의 《친윤석열파》이고 윤석열은 머리를 민고 쑥대우에 오른 민 총이처럼 높아졌던것입니다.

당대표를 무시해버려, 경쟁대상들은 《고등어》, 《벌치》 취급해, 선거대책위원회 제 마음대로 구성해, 와주실사 청해놓은 총판선대위원장도 꼭지부른 쓴외보듯,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거칠것이 없는 윤석열의 《사당》, 《검찰당》이 되었습니다.

# 난 파선의 운명

김려룡

썩은 숲에서 불난다더니 아닐세라 망조의 불씨가 튀었구나 악재의 불에 타고 혼란의 진멸에 허덕이는 말그대로 초상난 집이다 《국민의힘》 그 불꽃은

《선거대책위원회》 그 간판 내걸자 부터 알뜰과 마찰로 불고뜯는 싸움판 지지마다 기를 쓰고 다루는 승부 그야말로 대책없는 판무장이더니 끝내는 갈기갈기 찢어진 넘따처럼 해체되어버린 그 꼴 실로 가관이다

하για 물고긴 대가리부터 썩는다 했거늘

《대선》후보라는 작자부터 골치거리 아부리 거구라 매집이 좋다 해도 그래도 정도야 있어야지 련일 망언으로 비난과 조소거리

어디 그뿐이나 허위와 위조로 매탁질된 가정부 매는 또 얼마나 썩은 내 물선 풍기는것이나

마지못해 내뱉는 사과라건 기껏해야 둔한 요술사의 서툰 눈속임수

오죽하면 《국민의 힘》이 내세운 《대선》후보 그 말썽군의 몸값이

불덜려 하강하는 락하산골 여름날 뚝뚝 떨어지는 생선값정도 쟤나 참다참다 더는 참지 못해 제 집안에서까지 《후보교체》 불부는 소리쟤나

《개편》의 망치 똑딱거리봐도 《변화》와 《쇄신》 침마르게 웨쳐봐도

아서라 두엄더미에서 꽃이 피라 참 가관한 그 짓거리에 헛웃음만 나온다

한마디 해주겠노니 썩은 기동골 두고 서까래 갈아낸다 새집 되라

선장을 잘못 만난 배는 울레갈데 없이 난파선의 운명이다 《국민의힘》 너의 운명도 다름없으리라

비난과 배척 민심의 그 드센 파도에 산산이 부서질 날 결코 멀지 않다



남조선에서 열린 집회 모습